

# 강진 청람중학교, 코로나19 대응 '주말 학교' 운영

### 기숙학교로 전남 각 지역 학생들 공동체 생활하는 특수성 지녀 고위험지역 학생대상...주말에 학교에 잔류하며 프로그램 참여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청람중학교(교장 선명환)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말학교'를 운영하였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심각성이 더욱 거세진 상황 속에서 청람중학교는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청람중학교는 기숙학교로 전라남도 각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각자의 개성을 지닌 각 지역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며 함께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전염병의 위험이 거세진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는 약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람중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은 고위험 지역의 학생들 56

명을 대상으로 주말에 귀가하지 않고 학교에 잔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말학교를 운영하였다.

**익숙함 속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주말 학교 첫째 날**

8월 28일 주말학교 첫날 첫 프로그램은 보물찾기였다. 과자, 빵, 음료수, 불펜, 선생님의 격려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보물을 뽑을 수 있는 추첨권이 학교 공간 곳곳에 숨겨졌다. 학생들은 보물을 찾으러 다니며 자신이 미처 몰랐던 학교의 숨은 공간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소 움츠러들던 몸매 활력을 불어 넣으며 한껏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한 김치찌개를 먹었다. 교장 선생님부터 국어, 수학, 역사 선생님 등 주말학교를 위해 남아 있던 14명의

선생님들이 힘을 합쳤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평소 볼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숨은 요리 실력과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맛있는 음식과 휴식이 함께하는 주말 학교 둘째 날**

8월 29일 아침 청람중학교에 미니 카페가 차려졌다. 이른 아침 선생님들이 모여 팬케이크와 우유, 시리얼, 그리고 빵을 맛있게 구웠다. 학생들은 이 미니 카페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식사 후 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아침 도서관이 열리고 그 옆 컴퓨터실에는 E-SPORTS 공간이 운영되었다. 철저한 방역 아래 학생들은 게임,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며 지친 일상 속 휴식을 만끽했다.

선생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카레를 먹고 학생들이 모인 곳은 학교 강당이다.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은 미니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구, 농구, 축구 등의 운동을 통해 학생들은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 파티가 벌어졌다. 평소 산악 등반, 수상 훈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덕분에 학생들은 능숙하게 버너와 불판을 준비하고 맛있게 삼겹살과 갈비를 구워 먹었다.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고기라 맛은 물론 재미도 있었다는 게 학생들의 공통된 소감이다.

**협동과 배려로 가득한 주말학교 마지막 날**

8월 30일에 이번엔 청람중학교 강당에 영화관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강당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영화를 감상하였다.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저녁은 학생들이 직접 김밥 만들어 먹기로 했다. 위생 장갑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조별로 역할을 나누어 맛있는 김밥을 만들었다. 쉽게 밖에서 사먹을 수도 있지만 직접 계란을 부치고, 당근을 볶고, 밥에 간을 하며 김밥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요리를 먹는 기쁨뿐 아니라 요리를 만드는 즐거움까지 함께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한 일은 대청소였다. 3일간 친구들이 없는 기숙사를 사용했기에 다음날 온 친구들과를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를 실시하였다. 평소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었지만 시간을 좀 더 투자해 평소처럼 깨끗하게 기숙사를 청소하고 다음 날 올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학생들은 주말 동안 특별한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이번 주말학교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학부모들 또한 전염병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청람중학교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현했고, 특히 자신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3박 4일 동안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준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한민국이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람중학교의 이러한 결정이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TF 운영 '성과'

학교 시설공사 과정 개선 등 분야별 청렴도 향상방안 제언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청렴도 최우수기관에 도전하기 위해 운영한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하는 '청렴 TF'가 4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분야 별 청렴도 향상방안을 내놨다.

전라남도교육청 '청렴 TF'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시설공사, 물품계약 및 예산,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운영, 인사관리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최근 최종 결과보고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렴 TF는 이번 활동을 통해 △ 학교시설공사 과정 개선 △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이상 시설공사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언했다. 물품계약 및 예산 분야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제도 개선,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조직 내 신뢰 분위기 조성을 제언했고,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세부기준 마련·보급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실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이상 현장학습 분야) △ 방과후학교 강사 및 업체 선정 시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 외부인

참관인단 구성·운영(이상 방과후학교운영 분야) 등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특히, 인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 교원인사비리 고발 시스템 구축 △ 교사 근무성적평정 절차 개선 △ 일반직 인사 관련 고충 해소 제도 도입 △ 공무직 순환 전보 체계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TF에서 도출된 정책제언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행하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청렴도 측정 분야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The 밝은미래 위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보성교육청, 관내 학교 대상

아울러, 청렴컨설팅단은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당부하고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것을 권장하는 한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청렴 저해 요인 및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 등 관내 교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청렴 마인드 함양과 함께 자체 자정 노력 강화에 앞장 섰다.

박복병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내 교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혁신보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인문계열 특화 과정' 운영

컴퓨터활용능력 키우는 과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학내 기초교육관에서 재학생 및 지역 인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2020학년도 인문계특화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특화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 실기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선

작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총 24명의 과정생이 매일 4시간씩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네이버폼을 통한 사전 자가 진단 및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

특화과정 참여 학생들은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를 이용하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고, 직장에서 필요한 사무자동화 실무능력을 익히며 취업역량을 강화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